

## 다산포럼

성유보



## [ 오피니언 ]

작년 봄부터 '다산포럼'에 칼럼을 써 왔다. 그러나 17대 대선을 앞둔 가을부터 중단되었다.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 선거였는데, 필자가 평소에 믿어 왔던 한국의 '정치 지향'에 대해 의문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연도도 바뀌어 2008년이 되었다. 그러던 차에 다산연구소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17대 대선 상황을 돌아본다.

사실 17대 대선은 이명박 당선인의 일방독주로 시종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5·파전'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 1강 이명박, 1중 정동영, 3강 이희창, 문국현, 권영길.

그런데 대선 공약의 메시지가 가장 단순하고도 강렬하게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동영 후보의 '가족 행복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 이희창 후보의 '원조 보수', '정통 보수론'은 이승만

정권 아래 좌·우의 대결의식을 계승하고 '좌익에 대한 척척'을 부르짖는 것이었다.

문국현 후보의 구호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며, 구호는 같지만 목표와 방법

## 우리 시대 '정치 지향' 바라보며

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노당이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 FTA반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아직 민노당은 국정의 주관자가 되기에는 빠르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유효한 안티세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각종 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의 기권율은 평균 3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선투표율이 60%대라는 것은 10% 정도의 유권자가 더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들이 왜 기권하였

는가? 무엇에 실망하였는가? 등은 큰 속제로 남아 있다.

어쨌든 투표자가 아니라 총 유권자 중에서 다섯 후보의 지지를 삼아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30%, 정동영 후보가 16%대, 이희창 후보가 9%, 문국현 후보가 3.5%대, 권영길 후보가 1.8%대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총 유권자 10명당 세 사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제일 관심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만성 실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에서는 그나마도 민노당은 다른 입장을 취하겠지만, 기왕에 경쟁력을 총선의 선거공약들로 삼는다면, 일시적 성장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제적 경쟁력으로 화두가 옮겨지기를 바란다.

한국의 '국제 경제 경쟁력', '교류 경쟁력', '문화 경쟁력' 등을 아우른 경쟁력 제고 경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현 정치세력을 크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세력을 적대관계로, 또 어떤 사람은 경쟁관계, 혹은 공존관계로 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민주화 세력 중에 경제성장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산업화 세력 중에서도 민주나 자유나 인권이나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경제성을 추진한다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키워나가는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한국인과 세계인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정치란 경제 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름의 꿈도 있어야 한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허달용



남과 북, 수도권과 지역,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장애와 비장애, 비정규직과 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 우리 사회는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양자가 팽팽히 맞서 공존하고 있다. 둘로 나눠진 듯하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남은 남, 북은 북.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클래식은 클래식, 대중가요는 대중가요. 그렇게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

여기에서 각기 다른 서로의 존재로 가능한 제 3의 문화를 모색하는 공연 하나가 있다. 창작뮤지컬 '발레리나를 사랑한 B-boy'가 그것이다.

'발레리나를 사랑한 B-boy'는 이러한

가자 우리'라고 가슴 통틀어 노력 부르던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stupid)"라고 1992년 클린턴은 말했던가? 다들 그렇게 바보가 돼 시장논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돈이 되는 문화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일로 식량과 안전에만 연연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어찌면 개인이 자유로운 주체의식을 지녔다는 것을 읽어버린 존재들인 것일까? 그러나 결국 애써 얻은 자신의 자유마저 빛줄로 꽁꽁 묶어 예전에 갇혔던 낡장 안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

## 동거하지 못하는 문화

양분된 사회체계에서 고전무용인 발레와 세계적인 1등 재원으로 등극한 한국의 B-boy들의 브레이크 댄스의 등次要모색하는 창작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 3의 길이어야 할 이 뮤지컬은 이 시대의 문화발전으로 과대포장되면서 전국 순회공연의 영광을 안게 된다. 어딘지 모르게 기형적이지 않은가? 짚은이의 날것으로서의 자유가 비싼 값에 포장돼 팔리고 있는 건 아닐까를 의문해 보게 된다. 이러한 대형 뮤지컬의 성공이란 혹시 성공 가능성 있는 문화를 집중투자하는 기업문화의 일면인 건 아닐까?

문화발전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문화적 성숙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시민사회 문화적 성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공동체문화이고, 토론하는 문화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공동체문화, 토론하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함께'

는 건 아닐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라는 울타리 안으로 자의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문화가 걸어 가야 할 방향성을 잊게 한다. 오직 하나님만 있는 문화가 아니다. 문화란 차이의 문화이고, 동거의 문화이고, 융합의 문화이고, 생생의 문화이다. 따로 또 같이 가는, 나날이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문화이다. 극단적일만큼 양분되어 있는 다양한 계급·계층·간 소통의 터널은 문화가 만든다. 다양한 문화야 말로 양분된 집단의 동거를 가능하게 한다.

인정할 수 있는 양자가 존재해야 하고, 양자는 서로 인정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에의 사회구조를 회복해 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양식으로서 대두되는 문화의 시작이고, 끝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장〉

## 스페어 타이어, 가벼운 임시타이어로 대체해야

얼마전 영국에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영국은 자동차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 대신 가벼운 임시 타이어로 바꿔 싣고 다닌다는 것이다. 일반 타이어는 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타이어 무게는 보통 10~13kg정도 나간다. 이것을 트렁크에 계속 싣고 다닌다면 그 무게로 인해 연간 약 90ℓ 정도의 기름이 소모된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5만원 정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를 1천만대로 계산한다면 1년에 1조5천억원 정도를 깃에 뿐

리고 다닌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예비 타이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반 타이어 무게의 절반도 안되는 임시타이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바퀴가 펑크나면 견인하거나 임시타이어로 정비소까지 간다. 정비소에 가면 새 타이어로 교체한다. 굳이 무거운 일반 타이어를 스페어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스페어 타이어를 값싸고 가벼운 임시 타이어로 바꾸면 어떨까.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계율침이면 화훼류 시설농가들이 연료값 때문에 한숨 짓는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는 연탄을 사용하지만 그 마저도 끓이기 어렵지 않아 더 이상 버ти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구이구이 데이, 삼겹살 데이 등으로 돼지 고기 소비를 늘리듯이, 짚은총·연인 등을 타깃으로 '꽃과 사랑'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

아름다운 끓임밥 큰 무기는 없다. 이 끓임에는 꽃말과 각종 의미가 있다.

이것은 사랑의 의미를 담아 청소년 친구 사이에 맞는 끓임, 짚은연인 사이에 맞는 끓임꽃이 피어나게 말이다.

꽃, 직장 분위기에 맞는 꽃 등을 개발해 꽃말과 의미를 심어 홍보하고 판촉하면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팝업 창을 띄우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언론에 홍보해 시민들에게 알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기념일처럼 행사는 국적 불평의 화이트 데이, 발렌타인 데이 같은 것도 입소문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꽃에 사랑의 의미를 심어 마케팅으로 전개해 보자.

꽃 소비도 늘고 전남지역 화훼 농가들도 웃음꽃이 피어나게 말이다.

▲이준호·고흥군 점암면

## 시설

##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업체는 93개에 달한다. 1년 새 지역 건설사 100곳 가운데 14개사가 폐업하거나 타지역으로 떠난 것이다.

지방건설업의 향후 전망도 어둡다. 미분양 아파트급증 등으로 민간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한데다 올해부터 종합·전문건설 간 겹겹재한과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중소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건설협회가 광주·전남지역 21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가 지난해 수주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다. 올 전망에 대해서도 46%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17%에 불과했다. 특히 74%가 지역 건설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했다.

지역 건설업의 침체는 민간부문의 위축에서 비롯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며 지방에까지 자금이 유동화되고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은 거의 민사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는 75개, 전출

## 韓총리 지명자 기대와 우려 교차된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씨가 공식 지명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숙고 끝에 스스로 내세운 '자원 외교형 총리'로 정치와 경제, 외교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한씨를 국무총리 후보로 발표했다. 한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과정을 거쳐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한 총리 지명자의 이력은 매우 화려하다. 서울대 교수와 주미대사, 외교부 장관, 경제부총리, 유엔총회 의장, 3선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유엔 기후 변화 특사 등을 역임했다. 글로벌 리더 혼연 총리를 표방한 만큼 한 지명자만한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교수를 거쳐 정·관·외교계를 두루 섭렵했지만 72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참신성이 떨어진다. 탈당과 복당 등 '철사' 정치인의 논란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 1980년 국보위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총리 지명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인 만큼 이 당선인의 의사와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겸증과정을 거쳐 공연한 정치공세나 트집잡기로 새 정부의 출범에 밝을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無等鼓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초고유가시대다. 산유국들의 감산이나 자연재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긴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든 것은 명확하다. 고유가는 국내 기름값은 물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생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분주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분주하다.

과학자들은 2단계로 이 효소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찾아내 궁금증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며 그 가치를 한층 추구해나갈 것이다.

최근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腸)에서 나무를 분해하는 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 바이오에너지 연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고도화한 밀집 등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흰개미의 장